

“中東과 韓國建設”

柳正烈 — 外國語大學校
大學院長 / 政博

① 中東은 기후면에서는 아열대지방이며, 社会的으로는 소박한 농촌사회의 특성을 지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후진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지역임에, 따라서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中東의 여러 민족들은, 우리 민족보다 근면하지 못하며, 이슬람(ISLAM)이라는 종교적 영향 탓인지 樂天的이며, 기후 탓인지 또 긴 휴식, 卽 “시에스타”를 즐기는 민족들이다. 유목민족, 卽 “베두윈”(註: 아랍語로 沙漠民들을 말한다)의 후예인 아랍민족들은, 사막 가운데 거처인 천막(天幕) 아래에 모여 환담하기를 좋아하며 政治에서 私生活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줄거리가 이어지며 때로는 흥분하기까지 하는 熱砂의 情熱的인 민족이기도 하다.

어떤 知覺있는 아랍人들은 옛날보다 나타해진 아랍민족성의 원인을 “石油發見”에 있다고 아랍石油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에 中世 때부터 아프리카 大陸에서 “노예貿易”을 시작한 유명한 商人들은 아랍人들이었고 東西交易의 主導的인 역할을 하며 “실크 로오드”(SILK ROAD)를 따라 낙타의 隊商들을 이끌고 다닌 장본인들도 바로 아랍사람들이다.

近世에 와서도 “아랍船員”들은 世界的으로 유명했다. 한국선원들의 해외수출이 있기 훨씬 전에 아랍선원들은 世界의 五大洋을 누비고 다닌 근면하고 훌륭한 船員들로서 정평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아랍商人들이 온 것은 이미 9世紀 또는 11世紀로 알려져 있다.

한 아랍학자는 아랍商人들이 이미 9世紀에 “산 많고 金이 많은 新羅”를 來往했다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韓國史學家들은 11世紀인 高麗朝의 8代 현종, 10代 정종, 11代 문종 때에 각각 100여명의 아랍商人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朝廷에 그네들 固有의 產物들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다.

한 예를 보면, 1040년 11월에 100여명의 아랍人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종에게 온도계, 沒藥(註: 향기 염료로 쓰는 수지), 多目(註: 물감 채취를 위한 나무) 등을 선물했고, 정종은 臣下들에게 命하여 따뜻한 호의를 이네들에게 베풀게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자랑스러운 古代文明을 지닌, 또 옛날에는 活動的이었던 中東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석유개발만 해도 發見에서부터 生産, 수송, 정유공업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技術, 資本, 市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의존을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고는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앞에서 서술된 여러가지 理由가 있으며, 그러한 오늘의 中東사회이기에 우리는 이 지역에 經濟的인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② 1973年末의 石油波動과 위력을 떨치기 시작한 아랍의 석유달러는 기존 世界經濟질서를 흔들어 놓았으며 그 후 거듭된 “오일쇼크”로 인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不況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는 世界경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상경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

며,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징후이다.

이 不況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1973년말부터 거듭된 油價과동에 따른 쇼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유가과동은 產油國과 非產油國 간의 國際的所得再分配라고 볼 수 있으며, 年間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소득을 산유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비산유국가군은 이에 기인한 경기위축요인을 제거시킬 방법을 아직껏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世界景氣가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다음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로 世界景氣의 正常化는 어떤 形態로든지 궁극적으로 석유달러를 還流시키는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各國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 있어서도 산유국의 막대한 흑자와 非產油國의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石油달러의 流出로 인한 非產油國들의 國際收支 부담이 不均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一 例로 1977年度의 貿易收支의 경우를 보면, 美國은 315億弗의 赤字를 나타냈고 日本은 175億弗, 西獨은 160億弗의 黒字를 各各 내고 있어 부담이 특정국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로 石油달러의 流出에 대한 各國의 대응책이 경기확대책이 아니고, 경기수축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各國이 경기부양과 수입증대로 나

가지 않고 수입억제, 경기수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世界不況을 심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을 질게한 것이다.

위와같은 世界景氣의 長期不況下에서 만약 中東지역으로의 해외건설 진출이 없었다면 1970年代 후반의 한국 경제는 크나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외건설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成長減速下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를 成長加速下에서 구조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건설에서 온 外貨稼得은 한국경제의 內在的 취약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이것을 다스려주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重化學工業化의 財源이 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經濟成長을 이끄는 데 있어서 수출에 처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에 彈力을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韓國의 海外建設은 “오일 달러”를 還流시키는데 중요한 일역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世界景氣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늘의 世界景氣가 長期不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基本的인 原因은 “오일 달러”의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建設輸出달러는 非産油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産油圈에서 온다는 점에서 商品수출보다 더욱 世界景氣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③ 建設을 통한 經濟協力 역시 雙務的이고 相對的이며 더욱이 互惠的이기 때문에 서로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中東건설진출을 두고 볼 때 상호간의 여건이 相對方의 必要를 적절히 充足시켜줄 수 있는 처지였기에 成功的으로 지금까지 進展되어 온 것이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中東地域의 산유국가들은 1973年의 “10월전쟁”이 몰고온 石油波動以後 막대한 오일달러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 財源을 自國內의 建設사업에 투입케 되었다. 많은 아랍産油國家들이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自國의 近代化에 注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의 경우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니, 이에 수반되는 建設事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보면, 一般的으로 人的資源이 不足하며, 國內 대부분의 産業部門에 非사우디아라비아系 아랍인들, 특히 팔레스타인인, 에집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必要로 하는 技術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건설인력이 사우디아라비아만해도 10만명 내외가 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으며, 이 人力輸出에 처한 現地의 여론과 반응이 대단히 좋은 것은 꼭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우리의 中東건설수출을 성공시킨 또 다른 요인은, 1960年代에 쌓은 越南에서의 경험이라고 하겠다. 이 경험이 中東進出의 底力이 되었고, 또 과감히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본다.

본인이 196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建設수출의 가능성을 절실히 느꼈다.

쿠웨이트의 힐튼 호텔에서 30代의 日本人 建築設計士 수명을 만났었다. 그때의 대화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進出이 可能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日本人力이 活動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교통성 차관을 만났을 때 기존도로망, 건설 중인 도로, 計劃中인 道路 등이 明示된 “靑寫眞”을 보여주며, 韓國建設業체들의 進出을 중용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었다.

그 당시 나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던 東南亞進出 建設業체들의 과감한 方向轉換과 中東進出의 必要性을 느꼈으며, 귀국하자마자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모 건설업체에 권유, 일년반을 協議 檢討하였으나 業체側의 시기상조라는 결론으로 成事되지 못했다.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던 탓이라고 본다.

1970年代 후반의 中東建設景氣는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低賃金에 상당한 힘을 입었던 것이며, 國際競爭力이 강했던 것도 이것이 크게 作用했기 때문이었다. 또 진출건설업체들도 직접 간접으로 이에 많은 利益을 볼 수 있었

던 것이다. 國內에서 約 300달러 정도의 勞賃이 中東에서는 約 700달러까지 計算되었던 것이 初期의 실정이었다.

④ 世界的으로 經濟成長이 저조했던 1970年代에도 우리의 高成長時代를 기록해온 큰 原動力의 하나가 바로 中東에도 경제진출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經濟가 景氣를 다시 回復하기 위해서 中東經濟進出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날을 세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의 진출수준 유지이나, 上昇이나, 아니면, 低下나, 인 것이다.

1970年代 후반기보다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위와같은 상황을 물고 오겠끔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自國의 産業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自國化 傾向”이며 外來技術과 人力에 100% 依存하던 것이 점점 위축되어 內國人에게 참여 및 이윤추구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석유달러의 위력이 弱化되어 가고 있으며 석유수입에 따른 景氣가 下落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랍産油國家들의 정책은 경제성을 더욱 더 따지게 되고, “石油生産高原”(PRODUCTION PLATEAU)를 유지하고 또 油價變動을 有利하게 조절하고자 減産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脫石油時代”(POST OIL AGE)를 벌써 염려하며 經濟協力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賃金上昇이 中東進出 韓國建設業체에게는 또 하나의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1980年 下半期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韓國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던 第三國의 근로자는 約 6%였으나,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40% 内外의 賃金으로 外國人을 싸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처럼 中東建設事業은 순탄하지 못한 것이나 問題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느냐, 또 그 能力을 培養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진취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우리의 進出전략과 그비들과의 經濟協력을 재고해야 할 時點에 온 것 같다.